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2: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에베소서 5:18-2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8) 이 생각을 품으라

4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취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겸손(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겸손히 주를 섬길 때(찬347/새212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찬507/새455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從心 (종심) 從心 Following Your Heart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 所欲不踰矩... 30에 뜻을 세우고, 40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50에 하늘의 소명을 깨닫고, 60에 다른 사람의 말을 편히 듣게 되고, 70에 從心(종심) 마음대로 하여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 내용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솔직히 불혹(不惑)의 나이가 40이라는 것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의욕적이고, 또한 욕심도 많은 나이가 40이 아닌가 싶습니다. 70쯤 되어 從心(종심) 법을 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아, 어쩌면 40이 불혹이라는 것은 그 정도 나이면 자기 욕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이 살아야 한다는 뼈있는 격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엡 4:22) 나이를 먹는다고 옛 사람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벗을 수 있는 것이 옛 사람의 욕심입니다. 옛 사람은 양파 껍질 같아서 한번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벗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욕심을 제어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욕심을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계란을 밟고 서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깨질 것이고, 발도 더럽혀질 것이며, 악취가 진동하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즉, 주님과 의 동행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욕심을 따라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대 젊은 전도사 시절, 새벽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알람을 세 개씩이나 셋업해 놓고 잤습니다. 침대 옆, 그리고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리, 마지막 알람은 한동네에 사시는 은퇴 장로님이 오셔서 “김 전도사, 새벽기도 갑시다!”라고 문 두들기며 깨우시는 것입니다. 안 일어날 수 없는 알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나 꾸념도 했지만, 지금은 알람 없이 일어납니다. 이젠 좀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은 이제 從心(종심)해도 늦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매일 설레임이며 기도 속에 만나는 從心(종심)입니다. 가끔 만나는 은혜를 매일 주시옵소서!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 所欲不踰矩... You made up your mind at 30, didn't waver at temptations at 40, realized your calling at 50, became comfortable listening to opinions of others at 60, followed your heart at 70 and you stayed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This is written in the [Analects]. Frankly, I don't agree that 40 is the age of temptations. I think we are most driven by our will and greed at 40. At 70 you can follow your heart and still be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shows that, perhaps, not wavering at temptations at 40 is a wisdom that at this age you should know not to harm others with your greed.

When you live following your heart, there will be many lines you cross that should not be crossed. Bible says,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belongs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and is corrupt through deceitful desires”. (Eph 4:22) Just because you aged does not mean that you have put off your old self. The only way you can put off greed of your old self is to become new self. Also, old self is like layers of onion skin. Removing one layer is not enough. We must remove it daily. We must renew ourselves daily to remove greed and to have a heart like God. Ultimately, greed within us does not resolve with age but it depends on how much we walk with God.

Following your heart of greed is like standing on an egg. It will break, your feet will get dirty, and it will smell. You will waste a precious value of life. Bible clearly states,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Gal 5:15) Another words, to walk with God is to do according to the Spirit. When you do according to the Spirit, you will not cross the line of greed.

In my 20's, as a seminarian, early morning prayers were extremely difficult. I used to set up three alarms before going to bed, one next to the bed, another one short distance from bed that would force me to get up. The last alarm was a retired elder in my neighborhood who would come to knock on my door and say, “Pastor Kim, let's go to early morning prayer!” He knocked on my door to wake me up. It was an alarm that I could not ignore. I used to complain by thinking who made up this early morning prayer and putting me through this suffering. Now I get up without an alarm. Even if I want to sleep more, I can't. Even if I followed my heart to sleep, I believe I can get up early without oversleeping. The key is to follow our heart with daily excitement of meeting God in our prayer. This grace that comes sometimes, may God provide to us daily!

주일설교시리즈 빌립보서 강해 -제8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이 생각을 품으라 (빌 2:1-8)



1.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는 만남이 있었습니까?

2.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1절, 참고/계 3:20, 엡 5:31-32)

3.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한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겸손은 단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3절)

4. 이 태도의 모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도(마음)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태도(마음, mind)는 어떠한 것인지 3가지로 적으며 그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1) _____ (6절)

2) _____ (7절)

3) _____ (8절)

적용하기



■ 적용찬양: 겸손(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겸손히 주를 섬길 때(찬347/새212장)



식당 사역

함께하니 더욱 감사

훈련소에도 다녀오고 단합을 다지는 모임까지 하며 으샤 으샤 힘을 모았건만, 뜻하지 않게 사역 자체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사실, 힘든 부역일을 안 하게 되어 살짝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진들과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야 하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다시 식당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적은 인원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만큼 더 많은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사역에 임했습니다. 2년간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권사라는 별명까지 생긴 동기 권사님들과 더욱 끈끈한 유대가 생김에도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권사

팀장님 내외분의 열정적인 섬김과 지혜로운 조편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네 달 중에 한 달씩 여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과 가뻐하게 섬기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베델의 일꾼들에게 맛난 식사를 대접함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령숙 권사

갑자기 바뀌어버린 많은 일상과 마찬가지로 신입 권사 식당 사역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4개의 팀으로 나뉘어, 4달에 한 번씩 봉사하게 되었지만, 만나면 언제나 반가운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일이라기보다는 섬김으로써의 예배라 느껴집니다. 봉사는 내가 아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며 때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임을 늘 경험합니다. 매주 신실함으로 봉사하시는 팀장님 내외분과 언제나 배려 많으신 동기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혜영 권사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섭리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사역 권사로서 온전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있었지만, 올해는 목회진과 스테프, 봉사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게 된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만난 동기 권사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길고 긴 코로나 숲을 지나 기쁨으로 리셋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동녀 권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식당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시나라는 잠언의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온몸으로 흠뻑 느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윤유선 권사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매뉴 준비와 사역을 향해 가는 길에서부터 찬양과 기쁨으로 저의 마음을 그득히 채워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로 시작하고, 사랑의 양념으로 조리하는 시간은 언제나 웃

음과 활기가 넘쳐 죽음과 질병의 공포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분들에게서 세상의 얼굴에서는 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미소를 보며,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목격하는 감사도 주셨습니다. 모든 식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도 대량 구매할 그 주의 주 재료는 매주 정확하게도 "special sale!"이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좋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선정 권사

할렐루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섬기시는 팀장님 내외분과 사역 동기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역에서 체험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내며 남은 반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채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맡겨주신 부역 사역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리셋!

최 신 권사



주를 즐거워함이 순종으로

저희는 주님 생각2,3 셀에서 함께 셀식구로 지내다 작년 팬데믹으로 교회가 닫혀 있을 때 만들어진 셀입니다. 그때 당시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워지는 셀의 목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은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셀목자님의 격려와 기도 속에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된 셀입니다.

셀식구일 때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Zoom 셀모임을 주체가 되어서 하려니 참으로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역 같던 시간이 지나고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보면 그 애뜻함이 간절함이 됨을 알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족이 되신 김현중, 성현실 집사님 두 가정과 긴 겨울을 보내며 온라인이었지만 눈물의 기도도 함께 나누고 응답의 소중한 체험도 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묶여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오픈되고 권오진, 노윤경 집사님 가정과 박준영, 이해림 집사님 가정까지 합류하면서 저희 셀도 제법 균형과 모양을 갖춘 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킨더의 아이들이 울망졸망한 가운데 하이스쿨의 형이 아이들의 TA 역할을 해가며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셀은 격주로 주일 오후 티타임 또는 특별한 날은 저녁 식사 모임으로 만나 교제를 나눕니다. 그날의 설교 말씀부터 지난 주간 있었던 생활 등등을 공유하고, 얼바인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셀식구들과 교회의 정보와 지역 정보를 나누며 함께 정착해 가는 중입니다.

낮선 분들과의 교제가 서툰 저희 부부이지만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믿음은 어색한 시간을 빨리 지나게 해주십니다.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우리끼리만이 아닌 예수님과도 그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서툰 셀목자를 셀식구들이 보듬어주며 가고 있습니다. 주님 생각4는 베델교회에 등지를 뜬 지 오래되지 않은 가정들이지만 그래서 더 서로의 힘이 필요한 셀입니다. 또 한 분의 셀식구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실히 가는 저희 셀식구길 독려하며 오늘도 함께 셀을 만들어 갑니다.

양석주 집사



일본 리모트 선교

그 땅,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리모트 선교란 무엇인가?

7월 26일-30일까지 일본 리모트 선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이 리모트 선교를 궁금해하시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선교 현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원격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베델 교회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현장을 가지 않고도 가능한 리모트 선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리모트 선교지로 일본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는?

선교 현장을 직접 가서 펼치는 사역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효과를 낼 사역이 일본 선교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본선교는 BYM 자녀들이 매해 가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펼치는 선교로 그곳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인구 1억2천만명 중 기독교인 비율이 1%로 복음화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 사역을 리모트로 하면서 마침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응용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리모트 선교를 연합사역으로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교회에서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일본 리모트 선교는 교회 내 5개 팀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사역입니다. BYM은 여름 성경학교 진행을 맡게 되며, 일본 선교를 다녀왔던 학생들을 위주로 팀이 꾸려져 교회에서 일본 현지 시간에 맞추어 Zoom으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일본어 예배팀은 영어 설교 말씀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맡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팀도 일본 선교를 다녀온 멤버를 위주로 BYM 과 연합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팀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온라인 VBS가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년팀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잘 운영되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며 일본 리모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일본은 세계 경제 3위로 부자나라지만 복음화는 하위권인 나라입니다. 일본 리모트 선교는 도교 비전교회를 개척한 강민숙 선교사님과 함께 섬기게 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리모트 선교를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팀 모두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허용진 장로

교회학교

2021 VBS "MYSTERY ISLAND"



신비의 섬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험! Mystery Island, Tracking down the one true God!이라는 주제로 2021년 VBS(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등 각 부서의 VBS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올해는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하는 VBS가 될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 성경 공부, Craft, Science(과학 연구), 게임, 암송 구절 게임 등 다방면으로 성경에 접근하여 말씀을 풀어나가는 신나고 재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God is Great!"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날 VBS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기쁨임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느곳에나 계시는 분임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God is Ruler!"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거룩하며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God is Emmanuel!"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에는 "God is Trustworthy!"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VBS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베델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VBS 방송 스케줄〉

- Day 1: 7월 13일(화) 오전 9시—all day
God is Great
- Day 2: 7월 14일(수) 오전 9시—all day
God is Almighty
- Day 3: 7월 15일(목) 오전 9시—all day
God is Ruler!
- Day 4: 7월 16일(금) 오전 9시—all day
God is Emmanuel!

VBS Carnival: 7월 17일(토) 신비한 Reptile Animal Show와 게임(각 부서 시간 참고)

- Day 5: 7월 18일(주일) 오전 9시—all day
God is Trustworthy!

*온라인 방송 영상은 7월 18일(주일) 이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VBS(여름 성경 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하신 이메일로 로그인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아 전도사



(하나님의) '열심'

나쁜 건 없다 좋은 걸 준다
그런데도 완강히 그걸 거부해 왔다 온 평생을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할 할까
어찌 절대 포기하지 않을까
I shall see I shall find
하나 그 이유를 어찌 알겠나
오늘도 산다 나 잘난 맛에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또 열심히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하는지
어찌 절대 포기하지 않는지
I shall see I shall find
이렇게 지겹도록 말 안 듣는
나로 당신 이름 부르게 하고
결국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해
I shall see I shall find
I shall see I shall find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19살 큰 포부를 가지고 보스턴으로 음악 공부하러 떠났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나이 40의 문턱에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네요. 인생과 신앙의 선배님들이 아직 좋은 때라고 더 열심히 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Pandemic을 지나며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불확실성과 부쩍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며, 아직도 철없는 애 어른인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욕심부리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아 촬영하기 일주일 전 우연히 선배님을 통해 이 곡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를 절대 포기 않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곡을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그

렇게 이 곡을 제 고백으로 '예수아'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14주년 결혼기념일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부족한 나를 볼 자신이 없지만, I am put here.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그분의 열심이 나를 이끄심을 신뢰하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I shall see, I shall find.



정봉화 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서찬석 목사
-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경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 유년부: 김재은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봉사자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 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2, 3부를 섬겨주시는 식당팀, 예배 안내팀, 새가족팀, 주차팀, QR팀, Cafe팀 외 봉사자분들은 University Synagogue에 주차하시고 교회에서 수시로 운영하는 미니밴을 타고 교회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① 교회 쪽에서 오시는 경우 Michelson Dr 신호등에서 U-Turn을 하셔서 Harvard Ave 길을 따라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회 쪽에서 Harvard 길로 오시다가 바로 좌회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지도 참고)
- ② 다른 교회와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Michelson Dr 입구로 들어오실 때는 직진 후, '베델교회 파킹' 이라고 표시된 곳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하실 곳: University Synagogue, 3400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문의: 흥대원 장로 (714)335-3300,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예배 봉사자

강단꽃(7,8월) | 7/11: 김정호, 최동주, 황자경 | 7/18: 박관규, 박재영 | 7/25: 이 청 | 8/1: 이태형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및 토요 웹사바 현장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예배 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오픈 합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일 특별 기획 "예수아" 수요일 특별 기획 "예수아(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가 찬양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으로 제작되어 방영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14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 "예수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아침영상 메시지 "여름" 이벤트 김한오 목사님과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하신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작품은 아침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

모집기간: 7월 4일-7월 18일
방법: 사진 4K화질의 원본 파일(가로로 촬영)
원본 파일 보낼 곳: bethel@bkc.org
문의: 김주홍 집사 (213)880-1022



◆ 일본 선교 (리모트) 팀원 모집 올해 일본 단기선교는 KM, JM, EM, BYM이 연합하여 온라인을 통해 리모트로 진행됩니다. Covid-19으로 인해 선교지 현장에 직접갈 수는 없지만 리모트 선교로 영어 성경 캠프, VBS사역으로 섬기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리모트 선교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7월 25일-7월 29일 오후 5-8시 (일본 현지 오전 시간에 맞추어 사역을 합니다)
신청/문의: 홈페이지, 허용진 장로 (714)423-6996

◆ 교회학교 VBS 카니발 안내 VBS에 등록하신 분들은 7월 17일(토) VBS 카니발이 있습니다. 신비한 Reptile Animal Show와 게임, 그리고 카니발 음식이 준비되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VBS 카니발은 VBS에 등록하신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등록시 선택하신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7월 17일(토) 유아, 유치, 소망부 오전 10-11시, 11-12시
유년, 초등부 오후 1-2시, 2-3시, 3-4시

◆ 동시통역 안내 2,3부 주일예배 통역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과 현장에서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성도님께서서는 본당에 입장하실 때 로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 분들을 찾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1년 가을학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www.bks.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6월 21일-7월 12일
수업기간: 8월 28일-12월 18일(16주)
수업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학생 (2021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토요 오전반(대면수업): \$280 (간식비 포함), \$300 (7월 12일 이후)
토요 오후반(온라인수업): \$180, \$200 (7월 12일 이후)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임시총회 오늘(11일) 저녁 7시, Bethel Classical Academy(BCA) 관련 사항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Zoom으로 개최되며 등록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주일 오후 5시에 Zoom링크 텍스트가 발송 되오니, 참석 바랍니다.

◆ 축하해주세요

- 김영일, 원미정 성도 가정에 아들 이안(Ian)이가 7월 9일(금)에 태어났습니다.
- 이문걸 집사, 이은화 집사의 장녀 이예슬 자매와 Gregory 형제의 결혼식이 7월 16일(금)에 있습니다.
- 유영창 성도, 유윤주 집사의 장녀 유진 자매와 이성우 형제의 결혼식이 7월 17일(토)에 있습니다.
- 유영창 성도, 유윤주 집사의 장남 유재영 형제와 김민경 자매의 결혼식이 7월 17일(토)에 있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편집장: 유미경 권사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Hold this Thought (Philippians 2:1-8)

1. Have you experienced synergy from meeting someone?

Apply to Life



2. What benefits are there from uniting with Christ? (v.1, Ref: Rev 3:20, Eph 5:31-32)

3. It says to have 'one in spirit and purpose' towards Philippians Church.
They are encouraged to have humility to do that. What kind of attitude is humility?(v.3)

4. Attitude of Jesus Christ is presented as a model for this attitude.
Write down 3 attitudes(mind) of Jesus and share what you learn from them.

1) _____ (v.6)

2) _____ (v.7)

3) _____ (v.8)

■ Song in Response: Humility(Not to Cry in the Midst of sadness),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